

아소산조 신사(阿蘇山上神社): 산 위에 있는 신사

아소 신사는 2천 년 이상 전인 기원전 282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아소 신사는 2개의 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칼데라 바닥에 펼쳐진 아소시에 위치한 하궁(아래 신사)과 아소산 분화구에서 백수십 미터 남짓 아래에 위치한 상궁(위 신사)이 있습니다. 분화구 자체가 신사의 신령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상궁의 정식 명칭은 문자 그대로 '아소산 위에 있는 신사'라는 뜻의 아소산조 신사입니다. 현재의 신전은 1958년에 건축된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아소 신사의 주된 역할은 아소산이 분화하여 지역의 농작물, 가축,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화산 신들의 기분을 좋게 유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소 신사의 신관들은 아소산 신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분화구 바닥 연못의 모습을 점검하고, 뭔가 이상이 있으면 교토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연못 물이 아소나 나라에 불길한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판단되면(분화는 국난의 전조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전국의 신사에 분화를 막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아소산은 역사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7세기 중국 역사서나 8세기 이후 일본 세시기에도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화산신앙은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으며, 매년 6월 초에 아소 신사에서는 화구 진혼제가 거행됩니다. 신관들은 축사를 읊고, 지그재그로 잘린 흰 종이 장식이 달린 막대 3개를 신들에게 바치는 공물의 의미로 분화구에 던져 넣습니다.